

향후 곡물가격 및 바람직한 사료가격 정책

사료가격 변동요인이 발생했을 때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연동제를 주장하고 싶다.

그래야 사료업계나 양축농가 모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래 OEM사료 생산주체들은 이런 식으로 사료 원재료비를 계산하고 있으며, 순수한 양돈농가들로 이루어진 모 영농법인 또한 원가변동 요인이 생기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사료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사료공장이나 양돈농가가 이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만은 없다. 이로 인해 신뢰가 오히려 상승한다.

이 기회에 정부나 관련업계 모두 사료가격 연동제 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채 병 조 교수
강원대학교 동물자원학부

1. 머리말

근래 우리 축산업계는 유럽이나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우병과 구제역으로 인해 초긴장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더욱이 양돈의 경우 국내 돈가도 좋지 않은데 사료값이 올라서 울상이다.(그러나 유럽지역에서 만약 구제역이 확산되면 국내 돈가는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이다)

본 고에서 지면 관계상

충분한 서술을 못하지만 간단하게 근래의 사료값 인상 요인과 향후 사료곡물가격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주변 자료를 통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2. 사료값 인상요인

2001년 들어 구정 이후 배합사료 가격이 업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8~10%정도 인상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돈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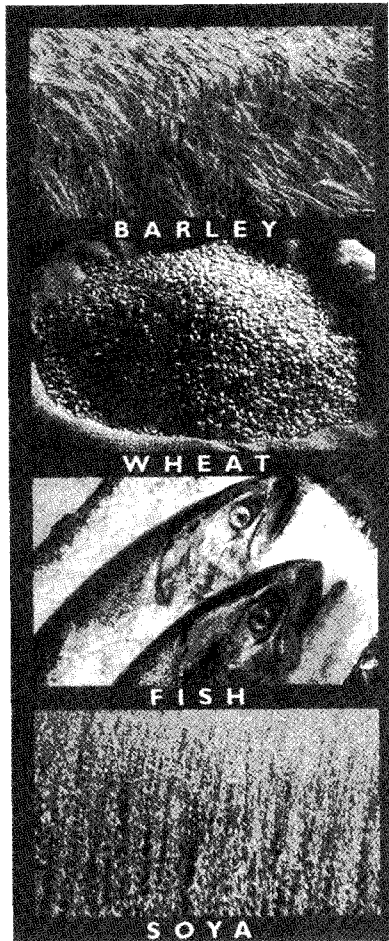
돈가가 낮는데 설상가상격으로 사료 값마저 올랐으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료값인상 요인은 외적 요인(국제적 여건)과 내적 요인(국내사료산업과 관련된 사항)을 들 수 있다.

외적요인으로는 다음의 3가지 즉, 환율상승, 옥수수 등 국제곡물가격 상승 그리고 유럽지역의 광우병 확산에 의한 동물성 단백질사료의 사용제한 결과 대두박 등 식물성 단백질 사료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선 환율변동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요인은 달러당 원화가 130원정도 하락했는데 이것이 사료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사료 kg당 12~15원으로 약 5~6% 상승하게 된다. 옥수수나 대두박 등 국제곡물상승은 옥수수의 경우 톤당 100불에서 115불, 대두박은 195불에서 220불(비싼 모선은 240불)정도로 이것이 사료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사료 kg당 13~16원으로 6~7%로 합계 11~13%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물론 이 인상요인은 환율의 적용시점, 배합비내

도입원료의 사용비율 등에 따라 계산상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사료회사에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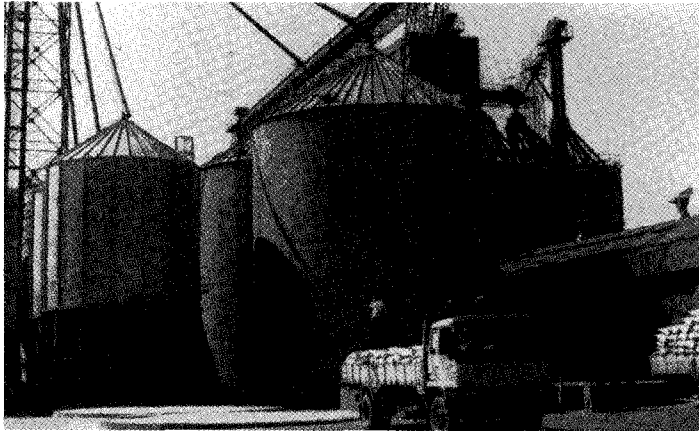


도 제품의 종류에 따라 도입원료의 사용비율이 다르고, 회사마다 수입 원료의 구매시점이나 구매량이 달라 일정시기에 사용모선이나 사용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장별 인상요인은 사실상 차이가 난다.

필자가 업계의 관련종사자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필자의 계산내용과 유사하게 대개 양돈사료의 경우 12~14%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한다.

한편, 내적요인으로는 환차손이나 부두의 수입원료 체화료는 직접적으로 인상요인이 된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판매의 과당경쟁에 의한 지나친 에누리나 비용지출과다, 저가의 OEM 사료생산에 의한 수익성의 감소도 사료값 인상요인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요인까지 합치면 사료값 인상율은 더욱 높아져야 한다. 이와 같은 사료가격의 직접적인 인상요인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료업계는 금년 상반기는 환차손에 의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저환율로 구매하여 이미 사용한 도입원료대금을 지금 높은 환율로 결제하자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은 농가에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폭의 인상 없이는 사료공장이 적자를 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물론 이것이 반대현상일 때는 사료공장이 이익을 챙



기는 셈이 되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수급예측 잘못에 의한 재고누적으로 부두의 체화료 지급도 상당한 비용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3. 향후 곡물가격전망

향후 사료곡물가격을 전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부분에 정통한 사람들조차도 오관하는 경

우가 허다하니 쉬운 일이 아님에 틀림없다.

향후 사료곡물의 가격전망은 주곡인 옥수수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사료용 곡물로 옥수수의 사용량이 가장 많으며 옥수수의 가격에 의해 대체로 다른 곡물의 가격도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옥수수에 관한 한 미국의 작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옥수수 작황의 결과가 다른 주요 옥수수 생산국(아르헨티나, 중국, 동유럽 국가 등)의 작황이 최악이 아닌 한 세계의 옥수수 생산과 수요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옥수수 여건(가격이나 생산량)도 매우 중요하다. 근래 중국이 WTO가입 여부와 관련하여 농가에 보조금 지급문제로 옥수수 시세에 다소 변동이 옴으로 인하여 미국의 옥수수시세가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이는 앞으로 이러한 중국의 여건

〈표 2〉 2001년 1-4월 국내 사료회사의 옥수수와 대두박의 도착단가 (단위: \$/톤)

구분	1	2	3	4	비고
옥수수	100~110	107~111	108~112	106~110	안정세
대두박	210~215	210~237	230~240	230~240	3~4월 강세

〈표 1〉 세계의 옥수수 수출 실적 및 예상

(단위: 백만톤)

구분	1998~1999년	1999~2000년	2000~2001년	2001~2002년	2004~2005년	2007~2009년	2008~2009년	2009~2010년
EU 15개국(역외 수출)	0.3	0.4	0.3	0.3	0.3	0.3	0.3	0.3
중국	3.3	5.0	6.3	6.5	5.0	3.5	3.5	3.2
아르헨티나	8.0	9.0	10.4	11.0	13.0	15.3	16.0	16.6
남아프리카 공화국	0.7	1.1	1.3	1.3	1.7	1.8	1.9	1.9
동유럽	2.5	2.9	2.4	2.2	2.0	2.3	2.4	2.4
러시아지역	0.4	0.5	0.7	0.7	0.7	0.7	0.7	0.7
기타	1.6	1.3	0.7	0.8	0.7	0.7	0.7	0.7
미국	50.3	48.9	48.9	49.5	55.2	59.7	61.0	62.9
미국점유율(%)	74.9	70.8	68.9	68.5	70.3	70.8	70.6	70.9

〈표 3〉 세계의 옥수수 생산과 수요변화(1985-2000)

(단위: 백만톤)

구 분	1985~1986	1990~1991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기 초 재 고	61.50	71.00	94.12	68.78	92.87	86.86	109.25
생 산 량	480.50	477.60	515.50	591.16	575.52	605.87	600.72
공 급 량	542.00	548.60	609.62	659.94	668.39	692.73	709.97
수 요 량	419.30	466.72	543.80	567.38	581.27	583.47	601.35
기 말 재 고	122.70	81.88	69.78	92.55	86.86	109.25	108.63
재 고 율 (%)	29.26	17.54	12.83	16.31	14.94	18.72	18.06

변화가 국제 곡물시세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주요 옥수수 수출국중에서 미국이 점유하는 비율이 70%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의 옥수수 작황이나 재고 보유율은 곡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미국농업부(USDA)의 자료에 따르면 장기 전망으로 향후 10년간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16%증가, 수요는 18%증가, 수출은 29%증가, 그리고 가격은 소비성장율이 생산성장율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어 70%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자료로 예측해 볼 때 사료 곡물가격의 장기전망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향후 단기간의 사료용 곡물가격은 크게 향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

다. 년초에 비해 지금의 국제 곡물시세는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의 근래 작황도 나쁘지 않다. 또한 (표 2)에서 사료협회산하 사료공장들이 사용하는 주원료, 즉 옥수수와 대두박의 국내 도착가격(C&F)을 보면 4월까지 옥수수는 110불선에서 머무르며, 대두박은 3-4월이 비싼 모선은 240불로서 강세이나 더 이상 상승하지는 않을 것 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표 3)에서 세계의 옥수수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근래의 옥수수 재고율은 18%수준으로 3년전 15%에 비해 약 3% 상승한 결과인데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근래 특히 유럽지역에서 광우병과 구제역이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가축의 사육두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며, 정확한 량을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사료용 곡물로서 옥수수의 사용량 또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4. 바람직한 사료가격 정책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사료가격이 여러차례 변동되어 왔다. 이는 IMF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국내여건 보다는 국제적인 여건, 즉, 곡물가격과 환율의 변동에 따라 사료가격이 조정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사료가격의 변동은 국내 물가나 축산물시세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즉시 인상하거나 즉시 인하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어왔다. 이것은 사료업체나 양축농가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따라서 필자는 사료가격

변동요인이 발생했을 때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연동제를 주장하고 싶다. 그래야 사료업체나 양축농가 모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래 OEM사료 생산주체들은 이런 식으로 사료 원재료비를 계산하고 있으며, 순수한 양돈농가들로 이루어진 김해소재 영농법인 상돈사료도 원가변동 요인이 생기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사료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사료공장이나 양돈농가가 이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만은 없다. 이로 인해 신뢰가 오히려 상승한다. 이 기회에 정부나 관련업체 모두 사료가격 연동제 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5. 맺는 말

사료값 인상요인은 12~14% 정도 발생했다. 그러나 우리 사료업체는 10%이하에서 사료값을 인상했는데 환

율이나 국제 곡물가격이 인상전 단계로 돌아오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5%정도는 인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환율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한 예측을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하기 곤란하지만 국제 곡물가격은 단기적으로 보아 향후 큰 폭의 상승은 없고 오히려 하반기쯤에는 다소 하락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양돈**

생석회 · 소석회

- 산성폐수 및 오수정화
- 축사소독 및 악취제거
- 총란 및 병원균 살균
- 유기질 분해촉진
- 산성 토양 개량 (pH안정)

영월 석회 공업사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250
 전화: (033)372-5837, 5618 / (033)372-5296, 6878
 FAX: (033)372-5889 야간: (033)372-5293